

월간 디자인

Vol.527 / 2022.5

mdesign.designhouse.co.kr

Monthly

DESIGN



농장에서 식탁까지, 애그리컬처 디자인



도시 농업 문화 공간의 표준, 라 시테 마레세르

도시 농업의 가치를 잘 알면서도 이를 살불리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간의 규모 때문이기도 하다. 연구 및 창지 지역에서 농경지로 사용할 땅을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값비싼 도심의 땅을 농작물 생산에 투자할 사람도 많지 않다. 파리의 위성도시 로망빌에 들어선 농업 문화 공간 라 시테 마레세르 La Cité Maréchère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것이 주민들의 식탁까지 이어지는 지역 상생 청안을 모색한다. 1층에는 주민 작업장, 교육 공간, 창원 및 레스토랑이 있으며 그 위로는 수직 농장이 이어진다.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기획한 프로젝트다. 자칫 뻔한 예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도시가 농업을 일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가치 때문이라는 점을 따올리면 이런 식의 세계적인 농업 공간과 순환 경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. 일리엘고 illeigo는 이곳이 주변 건축물에 이질감 없이 스며들면서도 도시 농업의 역동성이 드러나도록 디자인했다.

건축 일리엘고 illeigo.com

조경 Land'Act

사진 Paul Langemau

